

화가 상당히 진척된 동리(洞里)였던 것이다.

조일사진관이 있는 수표정 역시 일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간이다. 이것은 조일사진관이 처음 소개되는 장면에서부터 명확하게 특징을 드러낸다.

정에는 증턱쯤 오더니 D청요릿집에서 비스듬히 마주 보이는 담뱃가게 옆맹이의 사진관을 쳐다본다. 사진관은 이층이다. 이층 지붕 위에 간판이 서 있다. 간판에는 조일사진관이라 씌었고 ‘アサヒ’라고 일본 글자까지 썼다(밑줄 인용자).³⁷⁾

당시 수표정의 인구는 총 993명으로, 조선인이 전체의 69.9%를 차지하는 가운데 일본인이 21.3%, 외국인이 9.6%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표정은 <그림 4>에서도 검은 색으로 표시된 남촌의 접경에 위치해 있었다. 비록 남촌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20%라고 하는 높은 일본인 인구비율이 보여주듯이, 식민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수표정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일사진관의 이름이다. ‘朝日’이라는 명칭은 조선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향이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지칭한다. 그리고 ‘朝日’은 가타카나로 ‘아사히’라고 덧붙여짐으로써, 식민화된 공간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식민자의 영향력을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즉 염상섭은 일본인의 공간, 그리고 일본인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공간으로 전형적인 남촌만을 설정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형적인 북촌, 혹은 북촌과 남촌의 경계지 등에 위치하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경성을 분할하고 있는 이분법적 심상지리에 의존하지 않고, 더욱 복잡한 도

36) 1923년, 효자동과 인접한 청운동 89-5번지에 총독부 관사가 세워졌다(김명숙(2004), 『일제시기 경성부 소재 총독부 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3.).

37) 염상섭(1995), 『무화과』, 동아출판사, p. 509.

시의 양상을 재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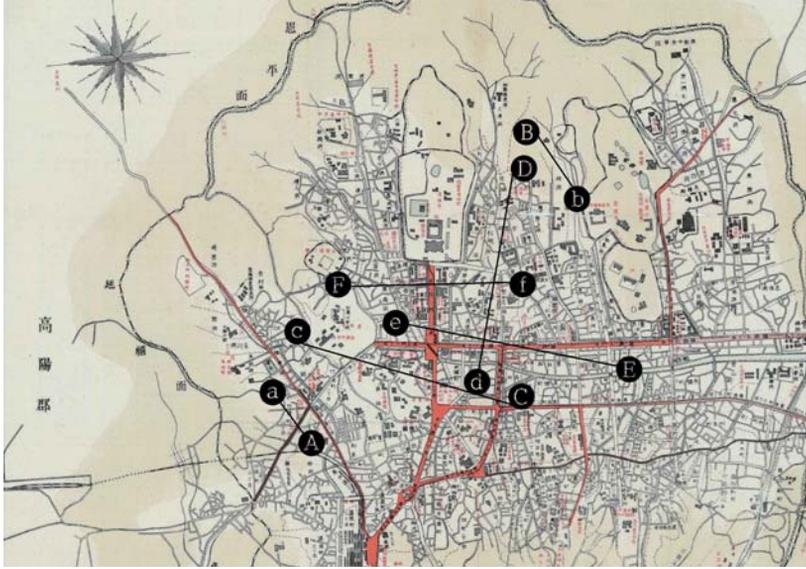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남촌’의 조선인을 살펴보자. 흥경에는 북미창정에 거주하고 있다. 1930년 현재 북미창정의 일본인 비율은 50.6%이다. 북미창정의 일본인 가구 수는 201호로, 중간인과 손정목의 기준 모두 ‘남촌’에 해당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에는 약 40%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다.³⁸⁾ 흥경애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남촌’이라는 심상지리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조선인의 존재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남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북촌’의 존재이다.

이렇듯 염상섭은 도시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염상섭 소설에서 많은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은 이른바 ‘남촌’과 ‘북촌’이라 불리는 공간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일본인은 인사동에 위치하며, 반대로 어떤 조선인은 북미창정에 위치해 있다. 효자동에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하는 반찬가게가 들어서고, 수표정에는 일본인들을 손님으로 맞이하기 위해 일본어 간판을 내건 사진관이 영업을 하고 있다. 남촌과 북촌이라고 하는 이항대립적인 심상지리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공간의 점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도시를 스테레오타입에 맞춰 독해하는 것을 넘어, 보다 복잡한 리얼리티에 접근하게 된다.

3. 계급의 간격: 연애에 있어서 거리의 문제

지금까지 우리는 염상섭의 소설이 민족적 차이에 기초한 심상지리적인 분할을 넘어 전체적인 경성 이미지를 그리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염상섭이 공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전체성을 예시하고자 한다. 바로 계급이다.

38) 1930년 북미창정의 인구는 일본인 772명, 조선인 534명, 외국인 218명이다(『경성 상업회의소통계연보』 1930년, 경성상업회의소, p. 4.).



『사랑과 죄』	『이심』	『삼대』	『무화과』	『백구』	『불연속선』
Ⓐ 이해춘(미근동) ⓐ 심순영(냉동)	Ⓑ 이창호(가회동) ⓑ 박춘경(원동)	Ⓒ 조덕기(수하동) ⓒ 이필순(홍파동)	Ⓓ 이원영(가회동) ⓓ 채련(다육정)	Ⓔ 박영식(장사동) ⓔ 춘홍(오공골)	Ⓕ 김진수(사직골) ⓕ 송경희(관훈동)

〈그림 7〉 염상섭 소설에서 연애의 지리 1

앞의 지도는 식민지시기 염상섭의 장편소설에서 주요 인물의 연애 관계를 지리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알파벳 대문자는 남성 인물을 가리키며, 알파벳 소문자는 여성 인물의 위치를 가리킨다. 알파벳 순서대로 **A/a**는 『사랑과 죄』의 이해춘과 심순영, **B/b**는 이심의 이창호와 박춘경, **C/c**는 『삼대』의 조덕기와 이필순, **D/d**는 『무화과』의 이원영과 채련, **E/e**는 『백구』의 박영식과 춘홍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F/f**는 『불연속선』의 김진수와 송경희의 위치를 표시했다. 『광분』의 경우 민경옥 및 숙정과 연애를 하고 있는 주정방의 위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모란꽃 필 때』의 경우 주인공 신성의 연애가 대부분

동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제외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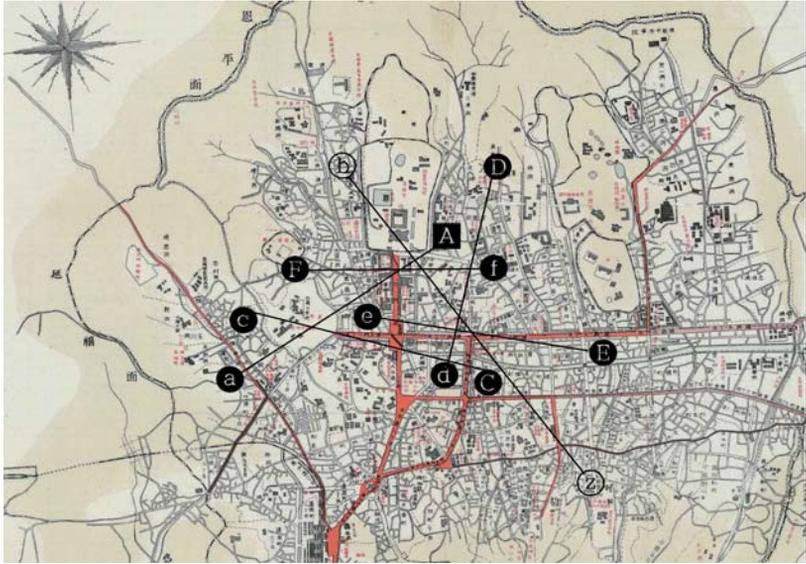
이 지도는 남/북촌의 분할로 이루어진 심상지리보다는 훨씬 복잡한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이 복잡한 형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찾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선 가장 직관적인 기준으로 이 결합들을 분류해 보자. 지도 위의 두 점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직선의 길이는 그대로 두 인물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물론 교통수단의 차이, 도로의 수준에 따라 실제 이동시간 및 접근성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적 차원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A쌍, B쌍이 상대적으로 지근거리에 있으며 나머지 C, D, E, F의 쌍은 보다 원거리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패턴은 일견 경성 안에 살고 있는 남녀가 가까이 살 수도 있으며, 반대로 멀리 살 수도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를 확인하는 듯하다.

하지만 텍스트 내의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지도의 패턴은 달라진다. 『사랑과 죄』에서 이해춘은 미근동에 이사를 오기 전, 간동에 살고 있었다. 『이심』에서 춘경은 창호가 ‘사상관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 효자동에 살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패밀리호텔의 지배인인 ‘좌야’와 불륜을 맺고 있었다. 패밀리호텔의 위치는 확정할 수 없지만, 좌야의 집이 대화정에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이해춘과 순영이 원래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춘경과 좌야의 관계가 경성의 남북 극단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이사를 가기 전의 이해춘을 A로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효자동에 있는 춘경과 대화정에 있는 좌야를 각각 ①와 ②로 표시하겠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다시 그린 지도는 다음과 같다.

39) 또한 주인공 신성의 거주지인 ‘아랫대천골’ 및 ‘내사골’의 현재 위치와 지명을 특정할 수 없었다.



『사랑과 죄』	『이십』	『삼대』	『무화과』	『백구』	『불연속선』
A 이혜춘(간동)	㉔ 죄악대화정	C 조덕기(수하동)	D 이원영(가회동)	F 박영식(장사동)	F 김진수(사직골)
a 심순영(냉동)	㉕ 박춘경(효자동)	e 이필순(홍파동)	d 채련(다육정)	e 춘홍(오궁골)	f 송경희(관훈동)

〈그림 8〉 염상섭 소설에서 연애의 지리 2

이제 하나의 패턴이 나타났다. 바로 간격이다. 지도는 A, B, C, D, E, F의 여섯 쌍이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대략 2km 정도로,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쪽이 적합하다. 이들은 창호처럼 동네를 배회 하며 우연히 정인(情人)을 만날 기회를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⁴⁰⁾

이 간격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점들이 지니고

40) 창호가 살고 있는 취운정과 춘경이 살고 있는 원동은 조금만 걸어나오면, 우연히 서로를 만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로 표현되고 있다. “‘그 계집아이가 취운정에 산보라도 와 주었으면…….’ 이러한 막연한 공상을 하면서 매일 학교만 파하면 취운정속을 헤매다가 발길이 저절로 계동으로 빠져 원동으로 향하게 되었다.”(염상섭 1987, 『이십』, 민음사, p. 43.)

있는 성격에 대해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일단 각 인물들의 직업을 표시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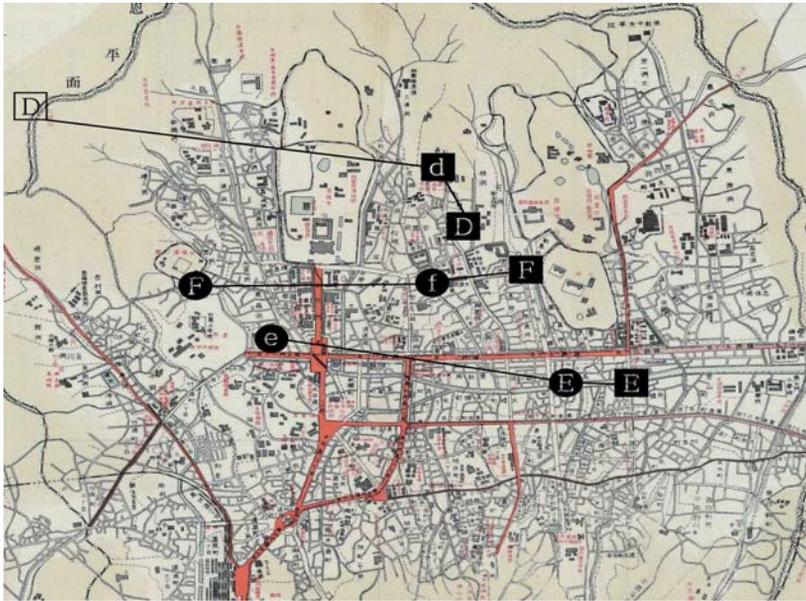
〈표 1〉 염상섭 소설 인물들의 직업

작품	남성인물	직업	여성인물	직업
『사랑과 죄』	이해춘	화가(귀족)	지순영	간호사
『이심』	좌야	호텔 지배인	박춘경	호텔 고용인
『삼대』	조덕기	학생	이필순	여공
『무화과』	이원영	신문사 영업국장	채련	기생
『백구』	박영식	교사	춘홍	기생
『불연속선』	김진수	운전수	송경희	카페 마담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남녀인물 사이의 사회적 격차다. 귀족인 이해춘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인 지순영을 만났다. 호텔의 운영인인 좌야는 자신의 고용인 춘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일본 유학생이며, 정미소를 운영하는 조부를 둔 조덕기는 가난한 여공 이필순을 마음에 두고 있다. 신문사 영업국장이면서 상사(商社) 삼익사를 소유하고 있는 이원영은 기생인 채련을 만나고 있다. 여기서 남성 인물들은 모두 여성 인물들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 다만 『백구』의 박영식은 춘홍에 비해 사회적 지위는 우위에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열등한 상태이며, 『불연속선』의 김진수는 후에 아버지의 금광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송경희의 아래에 있었다.

이 짝막한 정리로 염상섭 소설에 등장하는 남녀의 젠더적, 혹은 계급적 관계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들이 모두 어떤 ‘격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대강의 정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 지위, 혹은 경제적 수준에서 상대방과 상이한 상태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도 위에 찍힌 두 점의 간격이, 두 남녀 인물의 사

회적, 경제적 ‘거리’를 드러낸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염상섭 소설 안에서 원거리의 연애가 이루어지는 것은, 계급적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의 유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지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사랑과 죄』: d 이문정(가회동) D 한인호(재동) D 김봉익(무악재)
- 2) 『백구』: E 박영식(장사동) E 조혜숙(장사동) e 춘홍(오궁골)
- 3) 『불연속선』: f 송경희(관훈동) F 최영호(와룡정) F 김진수(사직골)

〈그림 9〉 염상섭 소설에서 삼각관계의 지리

앞의 지도는 염상섭 소설에서 삼각관계에 있는 인물들의 위치를 지도화한 것이다. 『사랑과 죄』의 경우 이해춘의 사랑을 두고 지순영과 다투고 있는 정마리아의 거주지가 불확실하므로 제외했다. 『이심』의 박춘경

과 『삼대』의 조덕기의 경우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같은 집에 살고 있으므로 지도 상 의미 있는 분별을 보여주기 어려워 제외했다. 『무화과』의 경우 이원영을 대신해 이문경의 삼각관계를 알파벳 **D**, **d**, **Di**를 부여하여 표시했다. 이원영은 조덕기와 마찬가지로 기혼자이기 때문에, 삼각관계의 지리적 차이를 보여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문경의 경우 기혼자이긴 하지만 현재 시집과의 갈등 때문에 친정에 와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남편인 한인호와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어서, 삼각관계의 지리적 차이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문경, 박영식, 송경희가 삼각관계에 있어 지리적으로 중간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삼각관계를 잇는 한 변의 길이는 상대적으로 짧고, 나머지 한 변은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역시 뚜렷하다. 이문경은 가회동에 살고 있어서 시집이 있는 재동과는 가깝고, 김봉익이 살고 있는 무악재와는 멀다. 박영식은 장사동에 살고 있어서 같은 장사동에 살고 있는 혜숙과는 가깝고, ‘오궁골’에 살고 있는 춘홍과는 멀다. 송경희는 관훈동에 살고 있어서 와룡정에 살고 있는 최영호와 가깝고 사직동에 살고 있는 김진수와는 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가까이 살고 있는 짝보다 멀리 있는 짝에게 끌리고 있다. 그리고 이 원거리에 위치한 짝들은 모두 사회적·경제적으로 격차를 지니고 있다. 반대로 가까이 있는 짝들은 사회적·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다. 이문경의 오라비인 이원영이 남대문 근처에 삼익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인호의 아버지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본가이다. 하지만 김봉익은 실직한 신문기자이다. 그는 원래 “삼청동 막바지 절간의 아래채에 줄행랑처럼 달린 방”에 기거하고 있었다.⁴¹⁾ 그러다가 후에는 “무악재 고개를 넘어 서서는 (...) 홍제원에서 모래사장을 휘돌아 들어가는” 곳에 방을 구해 들어갔다. 그곳은 “정간한 얇전한 집”이기

41) 연상섭(1995), 『무화과』, 동아출판사, p. 357.

는 하지만 “오막살이”인 것으로 묘사된다.⁴²⁾

『백구』의 박영식은 소학교 교사로 “사오십원 월급에 목을 메고 네다섯 식구를 간신히 살려가는” 처지다. 그는 원랑과의 혼담이 파기된 후, 친구 종호에게서 자신의 누이 혜숙과 결혼하지 않겠냐는 청을 받았다. 조혜숙은 박영식의 동생인 박은희와 함께 백화점 여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장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요컨대 비슷한 동리에 살고 있는 비슷한 계급의 처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식은 이 혼담을 거절했으며, 결국 ‘오궁골’에 살고 있는 춘홍과 만나게 되었다. 춘홍은 “제법 큼직한 대문에 전등이 환히 달리고 김춘자란 하얀 사기문패가 높다게 달려”있는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며, 은행의 요직에 앉아있는 이형식의 첩이다. 영식은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격’이 맞지 않는 짝을 만나게 된 것이다.⁴³⁾

『불연속선』의 송경희는 종로에 있는 카페 ‘폼페이’의 주인이다. 그녀는 경성제국대학 졸업생이자 광화문에 위치한 돈화양조장을 소유하고 있는 집안의 최영호에게 구애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과 최영호를 태웠던 운전기사 김진수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서 김진수가 뒷좌석에 송경희와 최영호를 태웠다는 것은 상징적이다. 그는 사용인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두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송경희는 근린관계에 있는(집이 가까운, 동시에 옆자리에 앉아있는) 최영호 대신, 멀리 있는(집이 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김진수를 선택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뛰어넘는 만남이었다.

이렇듯 간격을 뛰어넘는 연애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지만 두 인물 사이의 거리는 바로 사회적 간격이다. 원거리의 연애는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공간이 서로 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차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 공간적 차이

42) 염상섭(1995), 『무화과』, 동아출판사, p. 570.

43) 염상섭(1987), 『백구』, 민음사, pp. 24-182.

는 “만남·친화성·공감 혹은 욕망까지를 예측하게 하는 거리들을 규정”한다. 사회적 공간 내부에서 인접성은 서로를 가깝게 만든다. “공간의 제한된 한 구역에 들어간 사람들은(그들의 속성들과 성향들, 그들의 취향들을 통해) 서로가 보다 가깝고, 동시에 서로에게 접근하는 성향이 보다 강하다.” 그러니 인접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접근시키고 동원하는 일이 보다 수월하다.” 반대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접근시키는 일은 어렵다. 그것은 “공간적 거리를 배가시키려 오는 사회적 한계를 위반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⁴⁴⁾ 이러한 인식들에 따르면 간격을 뛰어넘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염상섭의 소설은 분리된 공간을 넘어 서로에게 다가가는 쌍들을 만들어 냈다. 도시 내부에 계급의 격차, 혹은 빈부의 격차를 따라 분할되어 있는 공간이, 애정을 통해 연결되는 것이다. 이때 소설은 빈, 부 어느 한쪽의 공간만을 묘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포함하는 광역(廣域)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지리적 거리를 계급적 거리의 은유로 만드는 수법은 단연 염상섭의 특징적인 것이다. 이광수의 경우 두 인물 사이의 거리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 소설에서 간격이 장애물로 나타나는 양상은 확인할 수 있다. 『무정』에서 이형식은 교동에 살고 있으며, 안동에 살고 있는 김장로의 딸 ‘선형’과 약혼했다. 여기서 경성학교 교사이자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이형식과 장안의 내로라하는 부자 김장로의 딸 선형 사이의 지리적 거리는 멀지 않다. 그리고 다방골에 살고 있는 영채와의 간격은 보다 먼 수준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기서 형식이 영채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는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다.

그러나 어디로 갈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한참 막막하였다.

(…) 희경은 가끔 길을 잊은 듯하여 우뚝 서서 사방을 돌아보다가 그대로 가기도 하고 혹 “잘못 왔습니다.” 하고 웃으며 오륙 보나 뒤

44) 피에르 부르디외(2005), 김용권 옮김, 『실천이성』, 동문선, pp. 26-27.

로 물러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 계옥이니 설매니 하는 고운 이름을 쓴 장명등이 보이고(...) 형식은 ‘화류춘이로구나’ 하였다. 처음 이러한 곳에 오는 형식은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함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행여 누가 보지나 않는가 하고 얼른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기도 하였다.⁴⁵⁾

형식이 영채를 찾아가는 길은 순탄치 않다. 우선 형식은 영채가 사는 다방골의 지리를 잘 모른다. 그것은 길잡이인 희경도 마찬가지여서, 두 사람은 자주 낯선 골목을 헤매야 했다. 그리고 형식은 다방골에서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감각하고, “누가 자신을 보지나 않는가” 불안감을 느꼈다. 이것은 지식계급인 형식이 다방골이라고 하는 유흥의 공간과 기생에게 느꼈던 거리감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거리가 장애물로 나타나는 양상은 『흙』에서 보다 분명하다. 『흙』에서 허승은 멀리 봉천에 있는 유순을 배신한 채, 자신이 몸을 기탁하고 있는 윤참판의 딸 정선과 결혼했다. 유순은 허승의 약혼소식을 멀리서, 신문을 통해 들어야 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다면, 허승의 결혼은 보다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이견형과 마찬가지로 인심과 명예를 잃었을 지도 모른다.

이때 이광수 소설에 나타나는 거리는 계급적 차이의 유비가 아니다. 이형식과 허승은 계급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심지어 같은 공간에서 김선형, 윤정선과 마주하고 있다. 이때 남성인물의 여성인물에 대한 거리는 출세의 가능성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영채와 유순은 선형을 얻으려는 이형식, 정선을 얻으려는 허승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염상섭에게 지리적인 거리는 애정을 위해 극복해야 할 조건으로 나타난다.

45) 이광수(2005), 『무정』, 문학과지성사, pp. 114-117.

문간을 나스니, 저편 춘허 밋헤 달빛을 허리 아레로 환히 밧고 섯는 춘홍이의 웃는 얼굴이 <크로쓰업>하야 눈동자에 타붓는 것 갓다. 춘홍이에게 대하여 이때만치 반가운 생각이 난 때는 업섯다. (...) 영식이는 집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도 비 뒤의 밝은 달을 바라보고 안젓다가 전후 생각업시 뛰어온 녀자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이때까지 잠자든 정열이 일시에 폭발될 것가티 전신의 피가 머리로 기어 올으는 듯하다.⁴⁶⁾

춘홍이 있는 오궁골⁴⁷⁾에서 박영식이 있는 장사동으로 오기 위해서는, 경성의 중앙을 가로지르고 있는 청계천을 따라 걸어야 한다. 즉 춘홍은 문자 그대로 경성을 횡단해온 것이다. 박영식은 춘홍이 오기 전, “실상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면 유경호의 요구대로 춘홍이를 자괴 손에 꼭 너허 가지고 무엇에 쓰든지 얼마간 주어서 떠러져 나가게만 하얏스면 일이 무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⁴⁸⁾ 하지만 “전후 생각업시” 무작정 경성을 가로질러온 춘홍을 마주하는 순간, “정열이 일시에 폭발될 것” 같은 지극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춘홍은 “남자가 돈업는 것을 첫재 조건으로 한다면, 그것은 자괴가 얼마든지 희생해도 조타는” 생각마저 하고 있는 것이다.⁴⁹⁾

여기서 도시의 횡단이 염상섭 소설에 보기 드문 로맨틱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계급적인 차이, 사회적인 위신, 이해관계가 모두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도시의 두 부분은, 횡단가능하고, 실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된다.

46) 염상섭(1987), 『백구』, 민음사, pp. 242-243.

47) 현재의 신문로1가.

48) 염상섭(1987), 『백구』, 민음사, p. 241.

49) 염상섭(1987), 『백구』, 민음사, p. 247.

4. 구별을 내포한 도시 이미지

지금까지 염상섭 소설이 어떻게 경성 도시공간을 전체적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염상섭은 우선 인종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남/북촌’이라고 하는 심상지리를 넘어, 식민도시의 복잡성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소설 속 연인들의 지리적 거리를 활용하여, 계급적 차이로 인해 분화되어 있는 ‘사회적 공간’들을 종합적으로 재현해냈다.

하지만 여기서 염상섭의 전체적 도시 재현의 의미는 조심스럽게 부연될 필요가 있다. 염상섭은 결코 도시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들을 ‘통합’시키려 하지 않았다. 요컨대 도시의 차이들을 묶어서 다루는 것은, 그것의 이질성을 무화시키는 시도와는 다르다.

『이심』에서 일본인 좌야, 그리고 미국인 커닝햄 등과 관계를 맺었던 박춘경은, 결국 신정유곽에 팔려 매춘부로 전락했다. 간격을 뛰어넘는 관계를 시도했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이다. 『무화과』에서 이문경은 김봉익을 보기 위해 무악재 너머로 먼 길을 떠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염집 규수로서 평소 가보지 않았을 화장터 구경을 하게 됐다. “행뎡그렁하고도 음기가 도는 곳간 속같이 우중충한 한가운데 둥그렇게 우뚝 놓인 돌가마”를 보던 이문경은 “혹 끼치는 찬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참나무 장작을 한아름 꺼안은 틱수룩한 늙은이”를 마주쳤다. 그는 “얼굴은 두 팔에 안은 참나무 장작 껍질과 조금도 틀림없이 오글쭙글하고 검은 진이 앉은 중에도, 동그란 조그만 두 눈만은 토끼눈같이 별경계 상기가” 된 무서운 모습이었다. 문경은 이 “지옥 문지기”와도 같은 사람을 보고 난 후, 집에 돌아와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다.⁵⁰⁾

이 두 여성의 불행은 “분할의 경계를 넘었다는 (…) 금기의 위반에 대한 처벌”⁵¹⁾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50) 염상섭(1995), 『무화과』, 동아출판사, pp. 573-575.

도 간격을 뛰어넘는 사랑이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 『사랑과 죄』에서 이해춘과 지순영은 도망자가 되었고, 『백구』의 박영식과 춘홍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갱단에게 이용당하고, 심지어 납치됐다. 그나마 『불연속선』의 김진수와 송경희 정도가 희망적인 결말을 암시하며 끝을 맺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니 염상섭 소설에서 간격을 뛰어넘는 사랑은 대개 ‘난관’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두 공간의 이질성은 결코 과소평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덕기는 이필순이 사는 홍파동에 찾아갔을 때, “마치 김칫독을 거적으로 싸듯이 꺼렇게 썩은 거적으로 뺨 둘러싼 집”을 바라보며, “서울서 20여 년을 자랐건만 이런 동리에는 처음”와 보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⁵²⁾

식민자와 피식민자 사이의 인종적 차이 또한 예각화된다. 『삼대』의 산해진과 『무화과』의 조일사진관은 식민자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상업공간이지만, 반대로 반식민투쟁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사랑과 죄』에서 남산정의 카페는 조선인이 진입 불가능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연스러운 곳도 아니다. 김호연은 “마리아의 일녀 볼 쥐어지를 만한 일본말”에 일본인 남성들이 “웃는 사람 자신도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을 가진” 웃음을 짓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깎이”는 경험을 해야만 했다.⁵³⁾

물론 조선인은 ‘북촌’이라는 심상지리적 공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완벽하게 분할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게 교류하며 뒤섞여 있다. 하지만 이 ‘뒤섞임’은 ‘통합’과는 다르다. 김호연은 남산정의 카페에서 “무심코 일본말”로 싸움을 말릴 정도로, 식민자의 공간에 동화되었지만, 한편으로 “나즉하게 조선말로 이야기 할 때에도 자기가

51) 조은애(2102), 『식민도시의 상징과 잔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57집,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p. 465.

52) 염상섭(2004), 『삼대』, 문학과지성사, p. 53.

53) 염상섭(1987), 『사랑과 죄』, 민음사, p. 207.

지금 조선말을 쓰거니 조선옷을 입었거니 하는 생각을 잃지 않았다.”⁵⁴⁾ 즉 차이는 끈질기게 차이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염상섭이 보여주고 있는 도시의 전체성은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로 섞이고, 차이가 무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도시는 오히려 이질적인 것들의 공존(co-existence)으로 나타난다. 도시는 결코 내부적으로 통일된 단일체가 아니라, 다양한 차이와 이질성들을 내포한 복합적 공간이다. 염상섭의 소설이 보여주는 것은, 이 분할되어 있는 사회적 공간들의 총체다. “모든 소가 까맣게 보이는” 밤으로서의 전체가 아니라 구별을 내포한 총체. 이것이 바로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도시의 이미지였다.⁵⁵⁾

54) 염상섭(1987), 『사랑과 죄』, 민음사, p. 207.

55) 가토 히사타케 외, 이신철 옮김, 『헤겔사전』, 도서출판b, 2009, p. 412.

참고문헌

【자 료】

-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
『개벽』.
『경성상업회의소통계연보』.
편집부(2009), 『서울지명사전』,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염상섭(2004), 『삼대』, 문학과지성사.
_____(1997), 『불연속선』, 프레스21.
_____(1996), 『광분』, 프레스21.
_____(1995), 『무화과』, 동아출판사.
_____(1987), 『백구』, 민음사.
_____(1987), 『사랑과 죄』, 민음사.
_____(1987), 『삼대』, 민음사.
_____(1987), 『이십』, 민음사.
이광수(2005), 『흙』, 문학과지성사.
_____(2005), 『무정』, 문학과지성사.
_____(1974), 『재생』 이광수 전집2, 삼중당.
『京城府管内圖』, 『京城府府勢一般』, 1917年, 1:16,000, 78.4×54.3cm, 서16065.
_____, 1927年, 1:15,000 78.5×54.8cm, 서13645.
서울시 GIS 포털 시스템(gis.seoul.go.kr).

【논 저】

- 가토 히사타케 외(2009), 이신철 옮김, 『헤겔사전』, 도서출판b.
강만길(1987), 『일제시대 빈민생활사 연구』, 창작사.
김명숙(2004), 『일제시기 경성부 소재 총독부 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윤희(2001), 『日帝下 京城地域 카페의 都市文化的 特性』,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종근(2010), 『식민도시 경성의 이중도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학연

구』 48호,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데이비드 하비(1983), 최병두 옮김, 『사회정의와 도시』, 종로서적.

마르쿠스 슈뢰르(2010),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에코리브르.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연구』, 일지사.

에드워드 사이드(2001), 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유인혁·박광현(2014),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이중적 구조의 건축과 식민지 도시의 이중성』, 『한국어문학연구』 62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윤대석(2006), 『경성의 공간분할과 정신분열』, 『국어국문학』 144호, 국어국문학회.

이경아(2009), 『경성 동부 문화주택지 개발의 성격과 의미』, 『서울학연구』 37호.

이혜령(2012), 『식민자는 말해질 수 있는가』, 『대동문화연구』 78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조은애(2012), 『식민도시의 상징과 잔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피에르 부르디외(2005), 김응권 옮김, 『실천이성』, 동문선.

Lynch, Kevin (1959) *The Image of The City*, The MIT Press.

Moretti, Franco (1998), *Atlas of the European Novel*, Verso.

원고 접수일: 2014년 6월 27일

심사 완료일: 2014년 7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4년 7월 31일

ABSTRACT

The City Image in Yeom Sang Seob's Novels

Yu, Inhyeok*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totality of the city image presented in Yeom Sang Seob's novels. Yeom, as a Seoul born author, wrote a number of work depicting various city areas in Seoul. *Love and Sin*, *Rampage*, *The Three Generations*, and *Fig* show the multi-dimensional faces of Seoul and its bottomless depths.

Firstly, Yeom draws an actual city image of Seoul rather than the imagined geography divided by ethnicity. In the colonial period, the idea of 'the southern village' (*namchon*, the Japanese district) and 'the northern village' (*bukchon*, the Korean district) was commonly accepted. These geographical names suggest that Seoul was actually divided and that it was difficult to traverse to the other side as it was intuitively split. Yeom, however, did not fence himself with such imagined geography. He shows that the division was not absolute. He focused on the Japanese living in the north, and Koreans dwelling in the south. As a result, his works make manifest the complexity of city spaces.

Secondly, Yeom combined distant classes and its social spaces. By do-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Dongguk University

ing so, he managed to unveil ‘the whole city’. In his novels, heroes and heroines are geographically distant from each other. Furthermore, their economical and class status are also very different. In this case, the distance between one another reflects their social difference. It makes us see the city as a whole. This is because that two halves (two different classes and also two different spaces) are combined.

Yeom is thus successful in representing the totality of the city space. This is not only because he wrote about more places than other writers; rather than depicting only a part of the city or the city in fragments, he represented the totality of Seoul.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this point by using maps and methods of literary geography.

